

이 글은 비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. 참고만 바랍니다.

글을 읽으시는 투자자분들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 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, 본 매체에 게시되는 자료는 어떤 경우에도 독자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심심한 Insight:

무력한 증시, 어떤 시그널을 보고 어떤 전략을 짤까?

[선 3줄 요약]

- ◆ 외국인이 정부의 구두 개입에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였음
- ◆ 정부를 믿는다면 채권은 투자적격등급 단기물 위주로 모아가는 거 의미 있을 것
- ◆ 회사채 발행을 국채 3년 수익률 이하의 이자로 성공적으로 발행하는 회사가 있다면 눈여겨 볼만한 것

[Insight Extraction Flow]

- ◆ 오늘 할 얘기는 길지는 않지만 꼭 한 번 천천히 따라오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



- ◆ 코스피는 올해 하반기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여름 동안 있었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.
- ◆ 특히 코스피는 코스닥, 나스닥과 비교해도 더 무기력한 모습입니다. 중국 A50보다는 낫지만...
- ◆ 코스닥도 외국인의 엄청난 매도 물량으로 장 중 내내 흐르는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.

0149 시장종합

2022/09/23

KOSPI 상 110 ↑ 1 하 796 ↓ 0 보 25

KOSDAQ 상 171 ↑ 2 하 1,293 ↓ 0 보 47

조회

| 구분 | 지수 | 대비 | 등락률 | 거래량(천) | 거래대금(M) | 종류 | 구분 | 현재가 | 전일대비 | 등락 | 일자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
| KOSPI종합 | 2,290.0 | ▼ 42.31 | -1.81 | 438,259 | 7,282,271 | 해외 증시 [종가] | 다우 산업 | 30,076.6 | ▼ -107.1 | -0.35 | 장마감 |
| KOSPI100 | 2,236.6 | ▼ 26.72 | -1.18 | 69,605 | 4,059,594 | | 나스닥 중 | 11,066.8 | ▼ -153.3 | -1.37 | 장마감 |
| KOSPI200 | 297.74 | ▼ 3.91 | -1.30 | 112,946 | 5,091,818 | | S&P 500 | 3,757.99 | ▼ -31.94 | -0.84 | 장마감 |
| KOSDAQ종합 | 729.36 | ▼ 22.05 | -2.93 | 866,297 | 6,430,917 | | 니케이 225 | 27,153.8 | ▼ -159.3 | -0.58 | 장마감 |
| KOSDAQ IT | 927.99 | ▼ 31.17 | -3.25 | 293,332 | 2,450,910 | | 항생 H | 6,153.31 | ▼ -42.59 | -0.69 | 09/23 14:4 |
| KOSDAQ100 | 1,431.6 | ▼ 48.07 | -3.25 | 34,988 | 1,417,819 | | 상해종합 | 3,089.23 | ▼ -19.68 | -0.63 | 09/23 14:4 |
| KOSDAQ150 | 1,019.5 | ▼ 31.43 | -2.99 | 44,298 | 1,472,111 | | 심천 종합 | 1,964.80 | ▼ -27.05 | -1.36 | 09/23 14:4 |
| KRX100 | 4,653.7 | ▼ 62.46 | -1.32 | 77,302 | 4,638,024 | | 상해 A | 3,237.40 | ▼ -20.47 | -0.63 | 09/23 14:4 |

| 구분 | 지수 | 대비 | 등락률 | 거래량 | 미결제약정 | 환율 | 구분 | 현재가 | 전일대비 | 등락 | 일자 |
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|
| F 202212 | 297.85 | ▼ 3.20 | -1.06 | 271,219 | 325,772 | 환율 | 원/달러(미) | 1,409.30 | ▼ -0.40 | -0.03 | |
| C 202210 302. | 2.79 | ▼ 1.59 | -36.3 | 27,287 | 8,907 | | 원/엔 | 9.91 | ▲ 0.04 | 0.50 | |
| P 202210 302. | 8.12 | ▲ 1.64 | 25.31 | 3,717 | 17,100 | | 상품 유가(선) | 83.07 | ▲ 0.55 | 0.66 | |

주식 ● 금액 ○ 수량 선물 ● 금액 ○ 계약 옵션 ● 금액 ○ 계약 (억원, 천주, 계약)

조회

| 구분 | 개인 | 외국인 | 기관계 | 연기금 등 | 금융투자 | 보험 | 투신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|
| 코스피 순매수 | 4,311 | -1,941 | -2,509 | -387 | -154 | -221 | -770 |
| 코스닥 순매수 | 2,803 | -3,101 | 364 | 8 | 641 | -15 | -66 |
| 선물 순매수 | 2,097 | -3,980 | 1,825 | -10 | 3,774 | -430 | -1,503 |
| 콜옵션 순매수 | -22 | 1 | 37 | | 38 | | -1 |
| 풋옵션 순매수 | 46 | -46 | -11 | | -11 | | |
| 주식선물 순매수 | 151 | -231 | 70 | 80 | 181 | -4 | -159 |

● 코스피 ● 코스닥 ● 당일 ○ 일자별 2022-09-2 ~ 2022-09-2 천주,백만웅

조회

| 구분 | 순매수 | 매도 | 매수 | 매도 | 매수 | 매도 | 주문수량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차익 수량 | | | | | | 차익 | 1,473 |
| 비차익 수량 | | | | | | 비차익 | 3,236 |
| 전체 수량 | | | | | | 매수 | 931 |
| 전체 금액 | | | | | | 비차익 | 63,516 |
| 차익 금액 | -540 | -26,896 | 1,471 | 72,184 | 931 | 45,288 | |
| 비차익 금액 | -10,582 | -168,593 | 71,130 | 1,742,996 | 60,547 | 1,574,403 | |
| 전체 금액 | -11,123 | -195,490 | 72,601 | 1,815,181 | 61,478 | 1,619,691 | |

증시 주변

고객예탁금

미수금

신용잔고

선물예수금

2022/09/21

50,779

-51

243

16

19,046

-213

11,663

-4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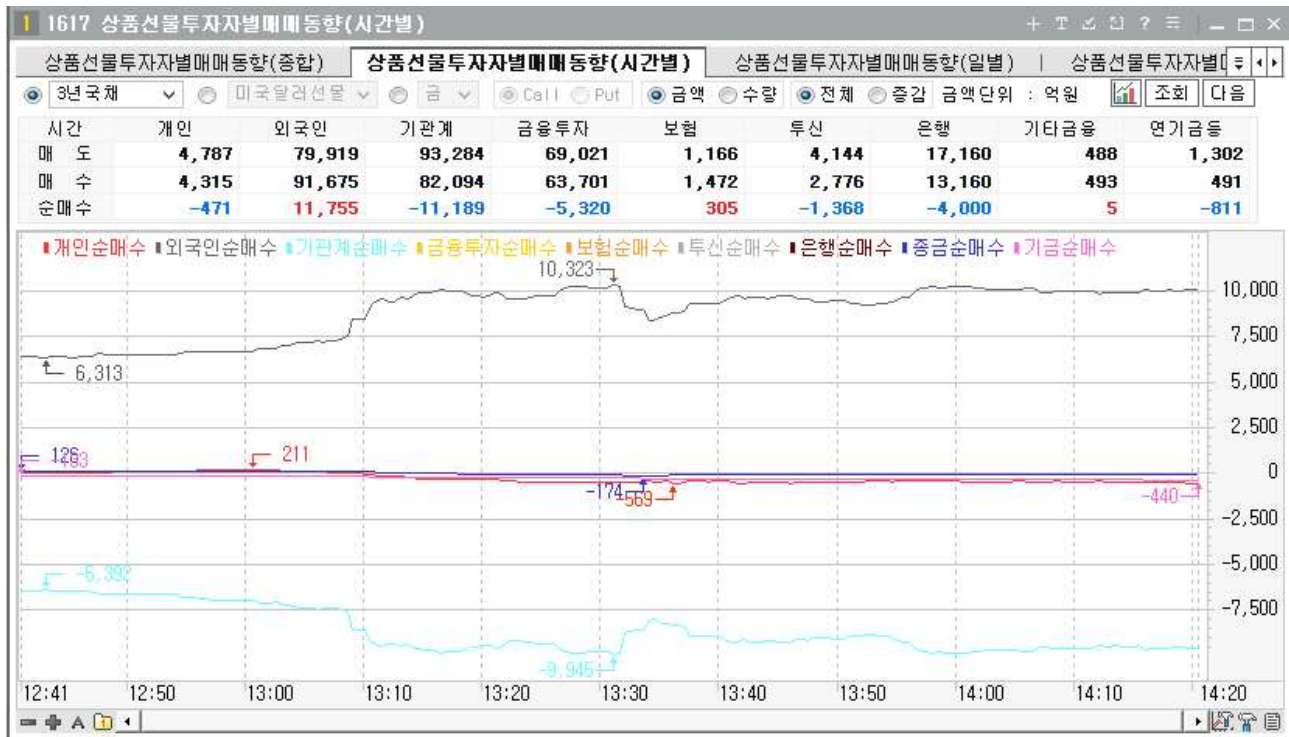
- ◆ 달러/원은 1409.30원으로 소폭 내렸으나, 숏포지션이 대세인 방향으로 미결제 약정이 크게 증가했고,
- ◆ 외국인은 코스닥 현물을 3,101억 원이나 던졌습니다.
- ◆ 비차익 거래의 순매수 규모를 봤을 때, 프로그램 매매에서도 매도 우위입니다.
- ◆ 종합해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국내 증시를 지배한 하루였습니다.



- ◆ 국채 3년물 수익률 그래프를 보면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입니다.
- ◆ 국채 3년물 수익률이 현재 4.13%까지 왔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.
- ◆ 첫번째, 3년 만기 국채에서 4.1%의 이자를 주는데... 앞으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수월할까? 절대 수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도 자금을 납득 가능한 이자로 조달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에 대한 사업 성장성은 적어도 어느 정도 믿음을 얻었다는 말이 됩니다. 이제 회사채를 낮은 이자로 성공적으로 발행하는 회사가 있다면 눈여겨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.
- ◆ 두번째, 장 초반에 갭으로 떠서 폭등하는 3년물이 4.3%까지 가다가 오후 들어서 갑자기 방향이 바뀌었습니다.



- ◆ 3년물 4.3%는 2010년 1월 이후 약 13년 만이고 그나마도 그 때는 금리는 내려가고 증시는 좋아지는 국면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0대 미만의 투자자들은 직접 투자를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시장 상황인 겁니다. 그런데 오후 들어 갑자기 왜 방향이 바뀐 걸까요?
- ◆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오후에 비상경제TF를 열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구두 개입을 했다는 기사(아시아경제, 20220923 14:41, <https://view.asiae.co.kr/article/20220923141381128>)가 있었습니다.



- ◆ 오후 들어 외국인이 3년 국채 선물을 사들이기 시작한 것을 볼수 있어요. 실제로 국채 3년 수익률도 비슷한 시간대부터 진정되기 시작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◆ 이제 이렇게 기재부의 코멘트가 채권 시장에 워킹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. 최근 타 기관의 달러에 대한 구두 개입은 효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.

[Opinion]

- ◆ Assumption 1 : 국장 한정으로, 미 기준금리가 현재의 컨센서스대로 움직이고,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 경쟁력이 여전히 과거 10년과 비슷하고 국가와 산업계의 신용 리스크가 지금보다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다면,
- ◆ Assumption 2 : 그리고 국내 증시가 의미있게 상방으로 돌아서는 조건이 외국인의 수급이라면,
- ◆ Assumption 3 : 외국인은 국채 → 지수 등 바스켓 → 개별 종목과 크레딧 순으로 순매수 할 것
- ◆ Fact : 외국인은 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본드에선 정부의 구두 개입에 움직임을 보였음
- ◆ Strategy 1 : 채권은 투자적격등급 단기물 위주로 모아가는 거 의미 있을 것
- ◆ Strategy 2 : 회사채 발행을 국채 3년 수익률 이하의 이자로 성공적으로 발행하는 회사가 있다면 눈여겨 볼만한 것